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주요 내용

I. 서론

- 지난 수년간 ‘가계발 금융위기’, ‘부동산발 경제위기’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실업, 금리인상 등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금융위기설이 제기
- 이와 같은 가계부채 우려 및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결여된 데 기인
 - 기존 총량지표 위주의 가계부문 재무건전성 평가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뿐 가계부채로 인한 실질적인 가계부문의 금융취약성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음.
 - 가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량지표의 추이 내지 다른 국가와의 단순비교를 통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경우 가계부문의 금융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계분석은 거시경제적 분석에 대한 보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지난 수년간 이어져 온 가계부채의 확대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
 - 이들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가계부문 금융자산 축적속도가 금융부채 축적속도에 비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
 - FRB 전의장인 Greenspan(2004)과 영국의 Monetary Policy Committee(2002)는 가계들이 부채와 함께 금융자산을 축적해 왔는지에 대한 연구조사의 중요성을 강조
- 가계부채에 관한 올바른 진단과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할 필요
 - 첫째, 가계는 특성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이 상이하므로 가계부채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가계부채문제로 인한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담보로서 작용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보유와 가계부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셋째,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
-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계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하기로 함.

- 통상적으로 가계 재무건전성은 가계소득 흐름과 보유 금융자산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음.
 - 즉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경제충격시 보유 자산을 처분하여 상환할 수 있다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가계부채를 정태적인 관점에서 부채와 자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가계부채의 동태적인 행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
 - 본 연구에서는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은 가계의 주요 자산구성 항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축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고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부채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함.

II. 가계부채의 현황

1. 가계부채의 추이

- 가계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08년 기간 중 가계신용은 2배 이상으로 확대
 - 2008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688조원(가계대출: 648조원, 판매신용: 40조원),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02조원에 달함.
- 이와 같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개인처분가능소득이나 GDP 보다 높음.
 -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된 2004년 이후에도 개인처분가능소득과 GDP는 4~6%대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가계신용과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8~11% 증가율을 나타냄.
-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표됨.

2.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 최근 3년간(2005~2007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연평균 금융부채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등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영국, 호주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실정임.
- 가계부채의 국제비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산 축적 속도에 비해 금융부채의 축적이 빠르다는데 있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독일, 미국, 일본(2000) 등의 가계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8~76%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81%, 2006년에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1인당 GDP가 늘어날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금융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하지만 금융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채에 비해 더 빠르게 축적*

*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의 경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가계부채의 분포

□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분포를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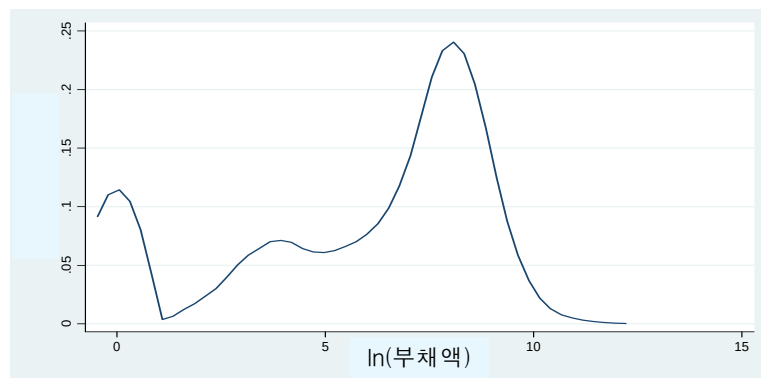
* 동 자료는 2007년 3월에 발표되었으며 9,300여 표본가구의 2006년 5월 현재 자산 및 부채 관련 정보를 포함.

□ 가계부채의 분포는 삼봉(tri-modal)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부채가 없는 가구도 상당수에 이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소액 부채 가구 및 고액 부채 가구로 나뉨.

— 분포의 형태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나타나고 있어 고액 부채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시사

<그림-1>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분포(2006)



주 : x축은 log(부채)를 나타내고 y축은 확률밀도를 나타냄

□ 가계부채의 분포를 부채액을 기준으로 보면 가계부채는 고액 부채 계층에 집중

○ 전체 가구의 60%가 가계부채 총액의 10% 미만만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상위 40%가 가계부채 총액의 91%를 보유

<표-1> 부채분위별 부채보유 비중

(단위: %)

부채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부채(100)	0.02	0.9	8.3	19.9	70.9

주 : 부채규모별로 가구를 배열하여 부채분위를 구분

- 가계부채의 분포를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면 高소득계층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63%)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2> 소득계층별 부채보유 비중

(단위: %)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부채(100)	8.0	12.5	16.4	24.9	38.3

주 : 소득크기순으로 가구를 배열하여 소득분위를 구분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았을 때 부채와 금융자산형성은 역U자형의 일생주기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자산 축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40~43세)에 부채가 최고점에 다다른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우리나라 가계는 연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에 부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부채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자산은 은퇴직전 내지 은퇴시점(49~54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III.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능력

1.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0.8배 수준
-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계층이 약간 높지만 모든 소득계층에서 0.8~1배 사이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음.
- * 부채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 비율이 1분위 계층에서 1.8로 상승하여 저소득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소득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 A)	2,881.0	1,022.1	1,796.9	2,424.7	3,726.3	5,880.1
가구연소득(만원, B)	3,420.9	1,023.2	2,151.8	3,081.3	4,141.8	7,272.8
소득 대비 금융부채(A/B)	0.8	1.0	0.8	0.8	0.9	0.8

-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크기별로 살펴보면 모든 소득 계층에서 70% 이상의 가구들이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배 미만
- 다만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배 미만인 가구 비중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동시에 5배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4> 소득계층별 소득 대비 부채부담 가구의 비중

(단위: %)

소득 대비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1배 미만	75.2	72.4	72.8	68.0	71.0	73.6
1~3배 미만	14.1	22.3	22.1	27.8	26.3	21.4
3~5배 미만	4.8	3.8	4.0	2.6	1.8	3.0
5배 이상	5.9	1.5	1.2	1.6	0.9	2.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각 소득계층별로 특정 소득대비 부채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계산

- 3·4분위 계층에서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3배 이상인 가구가 4% 이상 수준
-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약 5%가 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

2.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0.6으로 전체에서는 금융자산 규모가 금융부채를 초과
- 계층별로는 1분위 계층이 낮고 4분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5>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부채(만원, A)	2,881.0	1,022.1	1,796.9	2,424.7	3,726.3	5,880.1
금융자산(만원, B)	4,569.8	2,000.1	2,778.6	3,824.6	4,915.0	10,000.6
(A/B)	0.6	0.5	0.6	0.6	0.8	0.6

-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의 크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64.1%가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배 미만으로 순금융자산을 보유
- 그러나 금융자산의 5배 이상의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12.8%나 차지

<표-6>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대비 부채부담 가구의 비중

(단위: %)

자산 대비 부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0~1배 미만	70.4	62.3	63.2	57.8	67.0	64.1
1~3배 미만	10.9	15.9	17.7	24.4	20.4	17.9
3~5배 미만	2.9	5.0	7.0	6.1	4.9	5.2
5배 이상	15.8	16.8	12.1	11.7	7.7	12.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각 소득계층별로 자산 대비 부채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을 계산

3.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의 동시고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함께 적용하여 가구의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3배 미만) 동시에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낮은(3배 미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79.8%
- － 반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 이상인 동시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배 이상인 가구는 2.9%

<표-7> 소득 및 금융자산 대비 부채부담 가구의 비중

소득 대비 부채 자산 대비 부채	0~1배	1~3배	3~5배	5배 이상	소계
0~1배 미만	57.7	5.6	0.5	0.3	64.1
1~3배 미만	9.0	7.5	0.8	0.5	17.9
3~5배 미만	2.1	2.5	0.4	0.2	5.2
5배 이상	4.8	5.8	1.3	1.0	12.8
소계	73.6	21.4	3.0	2.0	100.0

IV. 가계 부채와 자산간 관계 분석

- ☐ 가계부채 및 자산 보유 행태식을 추정하여 부채가 많은 가구가 동시에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정
 - 부채와 자산의 상관관계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국한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포함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
 - 부채 및 자산 보유 행태식은 아래와 같이 2변수 토빗 모형으로 추정
- ☐ 추정결과*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간에는 마이너스(-),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과 금융부채 간에는 플러스(+)로 나타남.
 - * 자산과 금융부채의 행태식 추정에서는 소득, 연령 등 가구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규모는 큰 것으로 해석
- ☐ 이와 같은 추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부채규모가 큰 가구는 금융자산이 적어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
 - 그리고 금융부채 규모가 부동산 구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자산을 활용하고 부족분을 차입으로 충당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규모와 금융부채 규모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8> 소득계층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간의 상관관계

소득 분위	$\hat{\phi}$ (Bivariate Tobit)	
	I	II
1 분위	-0.018 (0.08)	0.09*** (0.29)
2 분위	-0.063*** (0.02)	0.12*** (0.31)
3 분위	-0.053** (0.01)	0.18*** (0.22)
4 분위	-0.039* (0.18)	0.24*** (0.38)
5 분위	-0.028 (0.13)	0.25*** (0.36)
전 체	-0.022** (0.17)	0.17*** (0.39)

주 : 1) I은 금융자산만을 II는 금융자산에 부동산자산을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임

2) ()은 단순 상관계수

3) *는 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V. 가계부채의 지속성(persistence) 분석

- 가계부채 관련 집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증가요인에 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요인은 차주가구의 평균부채액 증가로 나타남.
- 본 분석결과는 Karasulu and Schiff(2007)와 일치된 결과로서 이들에 따르면 2001~2005 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대부분 기존에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상위소득계 층이 부채를 증대시킨데 기인한다고 주장

<표-9> 가계신용 변화의 주요 요인(1999-2006)

변수명	가계신용 D_t	가구수 N_t	부채비율 η_t	평균부채액 δ_t
단위	십억원	세대	%	만원
연도				
1999	214,036.1	15,442,265	36.0	2,754
2006	581,963.5	18,326,619	41.5	5,023
2006/1999	2.72	1.19	1.15	1.82

- 가계부채의 동태적 관계분석에 앞서 두 시점간 가계부채의 변동패턴을 LOWESS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가계가 이전의 부채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부채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 노동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결정요인을 동태적 패널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한 결과 이전 결과들과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얻었음.

- 분석 결과 금기의 가계부채는 전기 가계부채수준과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늘어난 가계부채가 쉽게 줄어들기 어려움을 시사
 -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시간에 따른 차주가구의 부채수준 증가가 가계신용확대의 주요 원인이라는 앞선 거시 분석결과와 일치
-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의 관계는 앞서 정태분석결과와 동일한 플러스(+)의 일관된 상관관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VI. 결론 및 시사점

□ 본고에서 발견한 가계부채 관련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가계부채의 분포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둘째, 소득측면에서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평균적으로는 양호하지만 3배 이상의 높은 가구가 5%나 되고 이러한 가구는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고소득계층에도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셋째,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배 이하이지만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가 전소득계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
- 넷째, 소득 대비 부채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동시에 감안하는 경우 약 80%의 가구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약 3%의 가구는 두 지표가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
- 다섯째, 부채와 자산간의 관계는 부채가 많은 가구가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을 포함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은 가구의 자산보유 규모가 큰 것으로 추정
 - － 부채규모가 큰 가구는 금융자산 규모가 적어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
 - － 그리고 이러한 추정결과 금융부채의 크기가 부동산 구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 여섯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신규 부채의 증가보다는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적지 않은 수의 가구의 부채가 한번 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득 내지 부동산 자산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위험대비 금융자산 축적의 미흡, 지속적인 부채규모의 상승 등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가

계부채 문제가 향후 지속적인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

- 가계부채의 위험계층이 차지하는 부채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중·고소득계층이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들 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자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 제기하는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및 자산을 통한 상환능력이 떨어져 앞으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경우 이들 위험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됨.
 - 반면 소득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buffering)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늘어나 일시적인 소득변동에도 가계의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가계부채로 인해 증폭될 가능성 존재
 - － 금융자산 축적이 미흡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격, 금리, 실업률 등 경제 변수의 변화 리스크에 대한 가계의 노출이 증가하고 이들 변수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Develle, 2004)
 - 가계부채의 지속성, 금융자산 축적의 미흡 등은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문의 재무상태 및 거시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긴요하며 가계부채와 소비변동성에 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
-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분포를 감안할 때 향후 가계부문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가, 자산가격 변화에 민감한 중·고소득계층의 경우 자산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유지 내지는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저소득 일부 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자산 축적도 미흡한 만큼 이들 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의 처분가능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저소득계층의 경우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들 계층의 저축률 제고를 유도
 - － 저소득계층의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축증대에 제한*이 되고 있는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에 대한 절감을 추진
 - *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계층의 가계수지 적자율 상승분의 50% 이상은 통신 및 교통비 지출의 대폭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박종규, 2007).
 -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위험수준에 있거나, 금융부채 규모가 금융자산 보다 훨씬 많은 취약 계층의 경우 실업, 질병 등 일시적인 소득충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 실업정책 등 일련의 미시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